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선교회 이후에 담임목사실에서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집회는 수련회 보고회로 진행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늦지 않도록 마음을 쓰

십시오.

식 당 봉 사 : 백혜숙 김희우 허정호 정현숙 박경선 전충길 조순덕  
 8/28 식 당 봉 사 : 문영혜 신영신 이현숙 이윤주 박윤숙 김성은 유명남  
 오늘설거지봉사 : 신인경 이세민 송 샘 강지은  
 다음 주 설거지 : 이준하 노우종 고은숙 김인걸  
 새 교 우 : 김상욱(청년부)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7. 빛나고 높은 보좌와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살아갈 힘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둡고 비는 자주 내립니다. 주님,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을 보여 주십시오. 따사로운 가을 별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녹진한 몸과 마음을 개운하게 해 주시고, 논밭의 곡식들과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여물어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작고 여린 영혼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아닌 다른 이들, 특히 힘없고 약한 이들의 고통에 대해 무관심한 우리를 꾸짖어 주십시오.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는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마11:28-30 ..... 인도자  
 ♠ 교 독 문 ..... 15. 시편27편 ..... 다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장영숙 전도사  
 응 답 송 ..... 찬양대  
 찬 양 ..... 427(통516). 맘 가난한 사람 ..... 다함께  
 ♠ 성경봉독 ..... I. 계1:13-16 ..... 안 현 선생  
 ..... II. 마7:21-23 ..... 문홍일 집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찬 양 ..... 찬양대  
 말 씀 ..... I. 얼굴 하나 ..... 김재흥 목사  
 ..... II. 참의 종교, 은혜의 종교 ..... 김기석 목사  
 거둬기도 ..... 다함께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헌금:

김윤수 박상호 김준호 곽혜자 김훈동 유경순 박병구 김정애 박창운  
 허정윤 서원금 안종일 정현주 윤미경 윤수진 이재문 임주빈 최현옥  
 장대호 한숙경 홍순구 안홍숙 최선미 조병억 조정연 곽새롬 이광용  
 현인순 김혜영 안보혜

### 월정헌금:

김명순 이교영 김종문 지명주 문금석 박석희 조항미 송임희 이봉옥  
 이인웅 오송경 이종자 김창경 정두리 정원수 김재광 조병주 조순덕  
 김혜권 박재임 조선환 최재욱 이수정 L.K

### 감사헌금:

박창운 허정윤 김현동 배근수 김금순 신진식 변혜정 정선희 김필순  
 무명4

### 녹색꿈헌금:

김현동 김범진 김미현 이영순 무명1

### 생일감사헌금:

정영선

	장혜숙	백혜숙		
	노순옥	정경례		
	임정자	최경미		
	문영혜	이명희		
	안정숙	진정숙		
	박홍재	곽권희		
	박효선	허정윤		
	이순정	김금순	심	심
	이형숙	권미숙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이현숙		
	이영란	박미영		
	박혜경	조항미		
	김재흥	오자영		
	김기석	이건식		

## 닭의 하안거夏安居

고진하

이 오뉴월 염천에 우리 집 암탉 두 마리가 알을 품었다  
한 둥우리 속에 두 마리가 알도 없는데  
낳는 족족 다 꺼내 먹어버려 알도 없는데/  
없는 알을 품고  
없는 알을 요리조리 굴리며  
이 무더위를 견디느라 헉헉거린다/  
닭대가리!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부르진 말아다오  
시인인 나도 더러는  
뽀족한 착상의 알도 없으면서/  
없는 알을 품고  
없는 알을 요리조리 굴리며  
뿔 좀 낳으려고 끁끁거릴 때가 있나니/  
닭대가리!

제발 그렇게 부르진 말아다오  
그리고 싶어 그리고 싶어 꼭 그러는 게 아니니!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운선 김수진 김보라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찬양	516(통265).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다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릇된 길을 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길을 되돌려 바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함께 :	아멘. 주님의 뜻을 행함에는 힘쓰지 못하면서 개인의 만족만을 위해 은혜를 구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진리와 정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복		김기석 목사
<b>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b>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사도행전 / 김재흥 목사 기도 : 정영선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공동기도	곽권희 권사
	김기석 목사	김재흥 목사	하현철 권사

8월	영접위원	김인걸 홍순구 박규석 최영혜 안홍숙 박경선
	헌금위원	방문성 유경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코스모스꽃 피면 누나 생각납니다

요즘에는 큰길가에서 코스모스꽃을 보기가 쉽지 않다. 국도에서 조금 벗어난 시골길로 나가야 겨우 볼 수 있다. 코스모스는 늦여름부터 초가을 사이에 피기 시작한다. 길가에 코스모스가 피는 걸 보면서 이제 그토록 뜨겁던 여름도 물러가겠구나 하는 생각, 일종의 안도감 같은 것을 느끼곤 한다.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해야 비로소 가을이 오고 있구나 생각하게 된다.

여름이 더워서 견디기 힘든 탓도 있지만 뜨겁게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사람살이와 치열한 몸부딪침으로 힘겨워하다가, 그 열기도 조금 식혀 가며 삶의 속도도 한 박자 늦춰 가며 정신을 차리게 하는 계절이 초가을인 것 같다.

그렇게 여유를 갖고 자신을 되돌아보고자 하는 마음 곁에 코스모스는 피어서 흔들린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가녀린 자태와 꽃 모양에서 느껴지는 다소곳함, 코스모스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 [감자꽃]의 동요 시인 권태웅 선생은 그런 코스모스꽃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했다.

코스모스꽃 피면 누나 생각납니다

시집간 누나 별명 코스모스였어요 - [코스모스] 전문

짧고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동시다. 이 동시를 보며 사람들은 별 감동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동시를 처음 읽었을 때 한참이나 다음 장을 넘기지 못하고 있었다. 가을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는 어린 코스모스, 그 꽃을 보다가 이 시 속에서 말하는 이는 누나를 떠올렸다. 그 누나는 별명이 코스모스였다고 했다.

그 누나는 어떤 누나였을까.

코스모스처럼 가냘프고 여린 누나일 수도 있을 것이다. 생긴 것처럼 마음씨도 여리고 고운 누나였으리라. 코스모스꽃처럼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고 착한 누나였으리라. 도시에서 자라 약을 대로 약은 영약한 소녀가 아닌 순박한 시골 처녀였을 것이다. 어린 나이에 시집간 앓된 누나였을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욕심 없고 너무 큰 것은 바라지 않는, 그래서 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이웃의 누나였으리라. ...

권태웅 선생이 그렇게 노래했던 아름다운 꽃이 우리 주위에서 사라지

고 눈에 안 띄는 먼 시골로 밀려나고 있다. 내가 듣기로는 서울올림픽 때 이 나라 모든 국도변에서 코스모스를 뽑아내고 개량 해바라기에 속하는 주황색 꽃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니는 길가에서 흔히 보는 그 꽃이 코스모스를 몰아내고 자리 잡은 꽃인 것이다. 외국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바꾼 것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여간 서운한 게 아니다.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 그런지 코스모스, 과꽃, 채송화, 분꽃, 봉숭아 같은 꽃을 보면 그냥 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뭔지 모를 애뜻함과 연민, 한 마당에서 함께 살던 식구 같은 정감을 느끼게 된다.

그 속에는 가난하지만 가난함을 모르고 뛰놀던 어린 시절 마을 친구들과, 이해타산과 손익계산을 크게 상관 않고 한 덩어리로 뒹굴던 동기간들과, 손톱에 봉숭아 꽃잎을 짓이겨 봉숭아 잎으로 싸서 물들이고 잠들던 늦여름밤의 싸아한 공기와, 고개를 돌리며 돌리며 두고 떠난 고향집 트랙이 있다. 가 봐야지 가 봐야지 하면서도 자주 가지 못하는 옛집과 나무 울타리가 있다.

평상시에는 사는 일로 바빠서 잊고 지내다 어느 날 불현듯 꿈속에서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는 마을 풍경과 뒷동산으로 가는 길, 마을 허리를 잔잔하게 감아 돌던 저녁 연기와 밥 먹으라고 소리쳐 부르는 어머니의 정겨운 목소리가 있다.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끝 닿는 저기가 거긴가.”

“올해도 과꽃이 피었습니다. 꽃밭 가득 예쁘게 피었습니다. 누나는 과꽃을 좋아했지요. 꽃이 피면 꽃밭에서 아주 살았죠.”

이렇게 웅얼거리며 어디까지는 생각나다 어디서부터는 잘 안 이어지다 하는 그런 노래들이 살아 있다. 마음은 안 그런데 살면서 자꾸 멀어져 가는 고향의 느낌, 고향의 정취가 푹푹하게 배어 있다. 큰 욕심 안 부리고 살던 우리 어린 시절이 아리고 아프게 배어 있다.

어린 시절 울타리 옆이나 마당가에, 화단에 가득 피어 있던 꽃들은 점점 우리 주위에서 사라져 가고 먼 변두리로 밀려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는 그런 꽃보다 더 화려하고 화사하며 아름다운 꽃 무더기가 널려 있다. 그러나 과꽃, 채송화, 분꽃, 봉숭아, 코스모스같이 소박하고 보잘 것없는 꽃들에 자꾸 눈이 가는 것은 우리가 잊게 되는 것이 비단 그런 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소박한 삶, 꾸밈없고 욕심 없이 살던 삶의 모습 때문인지도 모르겠다.